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적 매개효과*

신 효 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석사졸업생

이 동 귀*

연세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가 순차적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교사 400명(남교사 82명, 여교사 3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관계에서 자기은폐가 부분매개 하였다. 셋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적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적 기체인 자기은폐와 인지적 기체인 사후반추사고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할 때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에 초점을 두고 개입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 본 원고는 신효빈(2021)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 및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위당관 410호, Tel: (02)2123-2437, E-mail: lee82@yonsei.ac.kr

최근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수가 2020년 2월 6,669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8%, 2017년 3,652명에 비해서는 82.6%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교사들의 심리적 소진을 우려하였다. 교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급증하여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권성연, 2020; 권신영, 2021; 김혜진, 2020;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 또한 교사들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문화일보, 2020.10.2.)도 교사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의 기저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회불안이 자리하고 있다(이현정, 김장희, 2020; 정연홍, 유형근, 2015; 황수아, 최한울, 2014). 교사의 사회불안은 교사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 및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조은혜, 이승엽, 정철영, 2021).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불안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심리 기제를 파악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불안이란 타인에게 관찰 및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고 이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다른 사람과 만남, 대화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과 발표, 연설 등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행 불안으로 구분된다(김향숙, 2001; Kessler, Stein, &

Berglund, 1998; Liebowitz, 1987;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Clark와 Wells(1995)는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인지이론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을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인지적 특성이자 장애요인으로 언급하였다(이정윤, 최정훈, 1997). 즉,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과도하고 비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조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기 쉽다(Clark & Wells, 1995; Nichols, 1974; Watson & Friend, 1969).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인 Rapee와 Heimberg(1997)의 인지 행동 모델도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정보처리의 편향 및 왜곡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장기기억으로부터 인출된 정보, 내적 및 외적 단서 등을 통합하여 타인에게 관찰되는 외양과 행동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고 잠재적 위협에 주의 자원을 할당한다(김은정, 원호택, 1997). 즉, 이들은 비슷한 상황에서의 과거 경험, 신체적 증상과 같은 내적 단서 및 다른 사람의 피드백과 같은 외적 단서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상(image)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를 예상하며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곽새롬, 2016).

관련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2019)를 보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55.5%)가 교사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

험했던 이전의 경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권미경, 김천기, 2015; 황수아, 최한울, 2014). 특히 원격수업이 실시된 이후 학부모가 교사의 실시간 수업의 질을 평가하거나 등교 방법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김혜진, 2020), 교사들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교사의 사회불안을 유발하고 심리적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변인으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중에서도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와 개입에 대한 두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학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전의 경험, 신체적 반응과 같은 자기 내적인 단서, 학부모의 표정이나 말투와 같은 즉각적 피드백 등 자신을 잠재적으로 관찰하는 학부모 및 그들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학부모와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 경험으로 이행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중, 고등학생 학부모에 비해 교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자녀의 수업 및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으며, 교우관계 갈등 등의 생활지도 문제 발생 시에도 개입의 빈도가 높다(이희진, 김성봉, 2020; 정계숙 외, 2021). 따라서 초등교사는 상담 등을 계기로 학부모와 대면하고, 학부모의 불만을 의식하며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높은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정연홍, 유형근,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예측 변인으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였다.

그동안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축적되어왔다(곽세롬, 2016; 임문주, 유금란,

2020; 한가희, 김정민 2017; Bautista & Hope, 2015; Rapee & Lim, 1992; Stopa & Clark, 1993).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수행 불안은 회피가 가능하고 생활의 일부 영역에만 해당되는 반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은 회피가 불가능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Kessler et al., 1998; Liebowitz, 1987; Turner et al., 1992). 또한 수행 불안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공황발작에 대한 공포와 더욱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Turner et al., 199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가 지각하는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곽세롬, 2016; 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 임문주, 유금란, 2020). 따라서 초등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정 변인 혹은 매개변인을 탐색하여 상담 장면에서 치료의 초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타인의 부정적 평가 및 파국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불안을 경험하고(홍영근, 2018),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의 불안이 인지적 및 행동적 특성으로 드러나 부정적인 대인 관계 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erey & Kring,

2007). 따라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인지 및 행동적 과정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이해하고 개입의 표적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동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 불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은폐(임문주, 유금란, 2020), 안전행동(이지유, 박기환, 2021), 경험회피(성채은, 김희경, 2021) 등의 행동적 요인과 긍정 결과 가치 절하와 부정 결과 과국화(곽새롬, 201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한가희, 김정민, 2017) 등의 인지적 요인이 연구되어 왔다. 이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발생, 유지 및 개입에서 인지 및 행동적 요인이 핵심적이며 인지행동치료의 치료적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연구결과들(권석만, 2014; 권정혜, 2007; 오자영, 손정락, 2009; 이정윤, 최정훈, 1997; Heimberg et al., 1990)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자기은폐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하고 지속하는 중요한 행동적 예측 변인으로 연구 되어왔다(이나희, 이동귀, 2020; 임문주, 유금란, 2020; Clark & Wells, 1995; Larson, Chastain, Hoyt, & Ayzenberg, 2015). 자기은폐(self-concealment)란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등 부정적이고 고통스럽게 지각하는 사적인 사고, 감정,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안전행동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에게 우울, 불안,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rk & Wells, 1995; Kawamura & Frost, 2004; Larson & Chastain, 1990; Larson et al., 2015; Uysal & Lu, 2011). 이러한 자기은폐 경향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핵심 공포인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지닌 사

람은 타인의 기대와 기준을 높게 측정하고 이에 맞추려고 하며 자신이 그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바람직한 인상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를 경험하기 때문에(Clark & Wells, 1995; Leary & Kowalski, 1995) 자신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 피드백을 피하기 위해서 의식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억압하고 비밀을 유지하고자 인지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정서적 부담도 크게 느끼는데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상황을 더욱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원인이 된다(Wegner & Erber, 1992). 즉, 개인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한 안전행동으로써 자기를 은폐하려 하지만 이러한 자기은폐가 오히려 대인 관계의 접근성을 약화시켜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고 불안 수준을 높인다(Clark & Wells, 1995).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태도를 겪은 후에도 학급 관리 소홀로 인해 민원을 만들었다고 하는 압박감,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언급하였다(김희정, 박은정, 김현정, 2021; 장일영, 기영화, 2020).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학부모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무능한 교사로 비칠 것에 대한 걱정, 직무에 대한 실패감, 수치심 등을 이유로 타인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이규미, 손강숙, 2013; 정연홍, 유형근,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인지적 과정 변인은 주의, 기억, 반추 등의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상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의 종료 후에도 부정적인 사후반추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Clark & Wells, 1995). 사후반추사고(post-event rumination)는 사회불안 성향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이나 타인이 관찰하는 수행 상황 이후에 부정적인 반추를 지속하는 인지적 과정을 의미한다(임선영, 최혜라, 권석만, 2007). 사후반추사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임선영, 2005), 많은 연구들에서 사후반추사고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 및 유지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박민주, 박기환, 2019; 임선영 외, 2007; 정한나, 김정민, 박은, 2017; Abbott & Rapee, 2004; Kocovski & Rector, 2008; Rachman, Grüter-Andrew, & Shafran, 2000).

나아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발표불안 및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를 통해 사후반추사고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변인임이 제안된 바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학부모의 민원을 겪은 후 일부 교사들은 머릿속에서 사건이 끊임없이 떠올라 괴로움을 느꼈고, 해소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 자신의 대처능력 및 기술에 대한 후회, 자책 등을 호소하였으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정 외, 2021; 이규미, 손강숙, 2013). 따라

서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경로에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초등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 가지, 두 매개변인 사이의 영향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억제된 사고 및 정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두 변인 사이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먼저 사고-억제의 역설을 밝힌 흰곰 실험에서 흰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 것을 지시받은 집단이 사고억제를 요구받지 않은 집단보다 흰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Wegner, Schneider, Carter, & White, 1987). 또한 정서억제와 반복적 부정사고가 생활사건과 불안, 우울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고, 정서적 억제가 걱정, 반추와 같은 과잉 사고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윤소영, 황성훈, 2020).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인지적으로 억제하려는 안전행동으로서의 자기은폐가 반동효과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후반추사고와 같은 침투적 사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사건 이후 직무에 대한 실패감, 수치심 등을 억제하고자 자기은폐 행동을 하지만(이규미, 손강숙, 2013), 사건에 대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억제되지 못한 사고와 감정이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라 이를 곱씹게 되고, 더욱 부정

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김희정 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과정의 최종 단계로서 사후 검토를 제시한 Clark와 Wells(1995)의 관점과 사고 및 정서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은 은폐하려는 자기은폐 행동이 나타나고 사회적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억제되지 못한 측면들이 사후반추사고로 이어져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될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 1). 이러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행동 요인인 자기은폐와 인지 요인인 사후반추사고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와 순차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행동적 요인을 이해하고 개입의 초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초등교사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소진으로 이행되는 경로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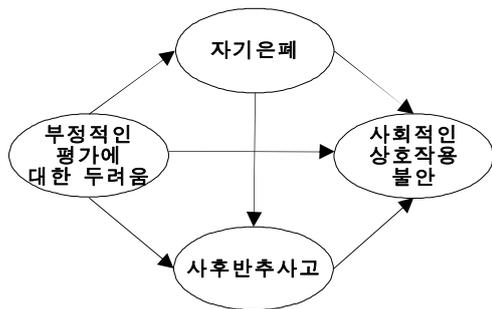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2020년 12월 14일~16일까지 온라인 설문링크를 게시하고 남녀 초등교사에게 설문 응답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00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성별 분포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남교사가 82명(20.5%), 여교사가 318명(79.5%)으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은 5년 이하 139명(34.8%), 6~10년 160명(40%), 11~15년 46명(11.5%), 16~20년 25명(6.3%), 21년 이상 30명(7.5%)으로 6~10년의 교직 경력 교사가 가장 많았다. 근무지역은 서울 114명(28.5%), 서울 외 수도권 155명(38.8%), 충청권 33명(8.3%), 영남권 52명(13%), 호남권 36명(9%), 강원 8명(2%), 제주 2명(0.5%)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단축형은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회피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30문항을 질문지로 개발한 것을 Leary(1983)가 전체 점수와 .50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12문항으로 단축하여 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총 12개의 척도 문항 중 2, 4, 7, 10번 4개 문항은 역채점 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Leary(1983)의 연구에서 FNE 단축형의 α 계수는 .90이었으며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도 .89 ~ .90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지닌 타당한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고자 ‘사람들’, ‘누군가’ 문구를 ‘학부모’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 계수가 .94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편감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것을 김향숙(2001)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IAS는 총 19문항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적 반응을 묻는 자기보고식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높은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19개의 척도 문항 중 8, 10번 2개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채점 되었다. Mattick과 Clarke(199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 ~ .94였으며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는 α 계수가 .92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도 .94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은폐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이거나 외상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자신의 사고, 감정, 정보를 타인에게 감추려는 경향성인 Larson과 Chastain(1990)의 자기은폐 개념 및 구성요인에 기초하여 박미란과 이지연(2008)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기은폐 척도 문항은 구성개념에 바탕을 둔 3요인인 은폐경향성 5문항, 비밀의 소유 5문항,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문항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문항의 총점이 높아질수록 타인에게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감추려는 자기은폐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박미란과 이지연(2008)의 연구에서 α 계수는 은폐경향성 .75, 비밀의 소유 .70, 누설에 대한 두려움 .79로 나타났고 전체척도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은폐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중 은폐경향성은 .83, 비밀의 소유는 .88, 누설에 대한 두려움은 .90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사후반추사고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경험한 후 자신의 이전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사후반추사고의 과정 및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주(2009)가 개발한 사후반추 질문지(Post-event Rumination Questionnaire: PRQ)를 사용하여 사후반추사고를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불안통제 실패반추 10문항,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 10문항, 지나간 상황 검토 6문항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은 Likert식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사후반추사고의 특징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김영주(2009)의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는 불안통제 실패 반추 .89,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 .92, 지나간 상황 검토 .91로 나타났으며 사후반추사고 전체척도의 α 계수는 .9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반추사고 척도의 Cronbach's α 가 .98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중 불안통제 실패 반추는 .96,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는 .95, 지나간 상황 검토는 .92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와 AMO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인들의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상성 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2단계 접근(Anderson & Gerbing, 1988)을 적용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증하였고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면 구조모형 검정을 통해 잠재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파악하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를 적합도 지수로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 기준은 TLI와 CFI는 .90이상이면 좋은 모형(홍세희, 2000)으로 판단하고 동시에 RMSEA는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80 이하이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으로 평가하였다(Hu & Bentler, 1999). 끝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모형을 확인한 이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하여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상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고 자기은폐는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은폐경향성, 비밀의 소유, 비밀 누설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측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사후반추사고도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불안통제 실패 반추,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 지나간 상황 검토로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표 1. 주요 변인과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N = 400)

	M	SD	왜도	첨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3.03	0.96	-0.15	-0.62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2.62	0.84	0.19	-0.60
자기은폐	3.02	0.88	-0.04	-0.46
은폐경향성	3.28	0.95	-0.24	-0.60
비밀의 소유	2.95	1.05	-0.02	-0.76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	2.83	1.10	0.16	-0.85
사후반추사고	2.98	1.41	0.56	-0.50
불안통제 실패 반추	2.57	1.47	0.90	-0.03
부정적인 대인 평가 염려	2.83	1.48	0.63	-0.49
지나간 상황 검토	3.92	1.55	-0.10	-0.94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모든 변인의 왜도는 ± 2 미만, 첨도는 ± 7 미만으로 나타나 자료는 정상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인

표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N = 400)

변인	1	2	3	3-1	3-2	3-3	4	4-1	4-2	4-3
1.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2.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53***	-								
3. 자기은폐	.41***	.60***	-							
3-1. 은폐경향성	.30***	.54***	.79***	-						
3-2. 비밀의 소유	.34***	.47***	.86***	.49***	-					
3-3.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	.41***	.52***	.89***	.55***	.69***	-				
4. 사후반추사고	.59***	.70***	.62***	.40***	.57***	.59***	-			
4-1. 불안통제 실패 반추	.48***	.61***	.54***	.34***	.51***	.51***	.95***	-		
4-2.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	.59***	.72***	.62***	.39***	.56***	.61***	.98***	.89***	-	
4-3. 지나간 상황 검토	.61***	.67***	.58***	.41***	.53***	.53***	.89***	.74***	.85***	-

*** $p < .001$.

들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r=.53, p<.001$), 자기은폐($r=.41, p<.001$), 사후반추사고($r=.59,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은 자기은폐($r=.60, p<.001$), 사후반추사고($r=.70,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자기은폐는 사후반추사고($r=.62, p<.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모든 하위 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른 2단계 분석 절차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활용할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의 구성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가 .97, TLI가 .96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RMSEA가 .08(90% 신뢰구간: .07 - .10)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본 자료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177.166	48	.97	.96	.08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수렴타당도 검증

잠재변인	관측변인	요인 적재값(β)	B	SE	t	CR	AVE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FNE1	.91	1.00				
	FNE2	.93	1.06	.03	31.79***	.95	.86
	FNE3	.94	1.05	.03	33.12***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SIAS1	.93	1.00				
	SIAS2	.93	1.07	.03	33.20***	.96	.90
	SIAS3	.95	1.07	.03	35.63***		
자기은폐	은폐경향성	.64	1.00				
	비밀의 소유	.79	1.38	.11	12.51***	.81	.59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	.87	1.57	.12	13.01***		
사후반추사고	불안통제 실패 반추	.89	1.00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	.99	1.12	.03	35.65***	.87	.69
	지나간 상황 검토	.85	1.00	.04	24.65***		

*** $p<.001$.

기준이 적절하였기 때문에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검증하는 구조모형 검증을 진행하였다.

한편 측정모형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네 개의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는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은 단일요인이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고 자기은폐는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은폐경향성, 비밀의 소유, 비밀누설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측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사후반추사고도 하위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불안통제 실패 반추,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려, 지나간 상황 검토로 관측변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표 4), 요인 적재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p < .001$) 요인 적재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관측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렴타당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합성 신뢰도는 .70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우종필, 2012), 분석 결과 합성 신뢰도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

려움이 .95,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이 .96, 자기은폐가 .81, 사후반추사고가 .87로 모두 .70 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평균분산추출값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86,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이 .90, 자기은폐가 .59, 사후반추사고가 .69로 모두 .50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모든 변인이 기준치를 만족하여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상관계수의 제곱값인 결정계수와 평균분산추출값을 비교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든 변인의 상관계수 제곱값인 결정계수보다 평균분산추출값이 높으면 판별타당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배병렬, 2014), 결정계수의 최대값은 .54인 반면, 평균분산추출값의 최소값은 .59로 나타나, 모든 변인의 결정계수보다 평균분산추출값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고 모형을 구성하는 잠재변인과 관측변인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

표 5.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잠재변인	1	2	3	4
1.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86)	.32	.22	.38
2. 사회적인 상호 작용 불안	.56	(.90)	.41	.54
3. 자기은폐	.47	.64	(.59)	.48
4. 사후반추사고	.61	.74	.70	(.69)

대각선 아래: 상관계수, 대각선 위: 상관계수 제곱, 대각선: (AVE).

표 6. 모형들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177.166	48	.97	.96	.08 (.07 - .10)
완전매개모형	189.588	49	.97	.96	.09 (.07 - .10)

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 반추사고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한 부분매개모형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본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을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완전매개모형과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구성한 두 모형 중 어떠한 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인지 판단하기 위해 χ^2 통계량과 주요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부분매개모형의 χ^2 통계량은 177.166, 자유도는 48였고, 완전매개모형의 경우 χ^2 통계량은 189.588, 자유도는 49로 나타나, 자유도는 1만큼, χ^2 통계량은 12.422만큼 차이가 났다. 자유도가 1인 경우 χ^2 통계량의 임계치는 3.84인데 그보다 큰 차이가 났으므로 두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χ^2 통계량은 부분매개모형이 더 작았기 때문에 부분매개모형이 더 우수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요 적합도 지수인 CFI=.97, TLI=.96로 .90 이상, RMSEA=.08(90% 신뢰구

간: .07 - .10)로 .10 미만으로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모형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와 그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고 표 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종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로계수 결과를 도식화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기은폐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47, p < .001$),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은폐를 약 22%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은폐 수준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후반추사고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7, p < .001$), 자기은폐에서 사후반추사고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52, p < .001$).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는 사후반추사고를 약 59%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나 자기은폐 수준이 높을수록 사후반추사고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 7.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SMC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은폐	.47	0.30	.04	7.98***	.000	.22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후반추 사고	.37	0.51	.06	8.39***	.000	.59
자기은폐 → 사후반추사고	.52	1.13	.12	9.07***	.000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16	0.14	.04	3.56***	.000	.59
자기은폐 →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24	0.31	.08	4.04***	.000	
사후반추사고 →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47	0.28	.04	7.76***	.000	

*** $p < .001$. SMC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다중상관제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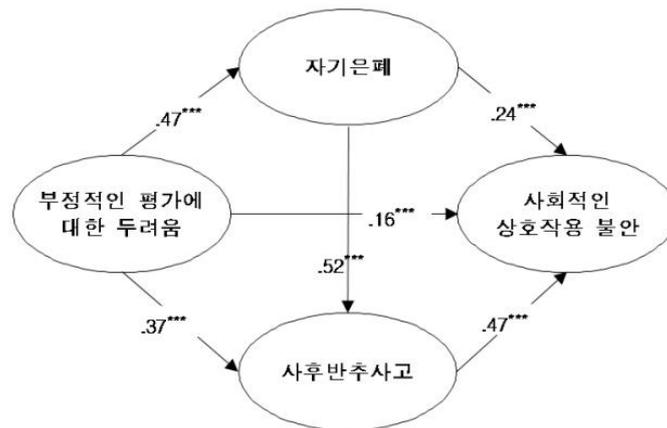


그림 2.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 $p < .001$.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약 59% 설명하였다. 즉,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16, p < .001$), 자기은폐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24, $p < .001$), 사후반추사고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beta = .47, p < .001$). 종합하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를 매개하여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2,000으로 설정하였고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를 매개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09로 추정되었는데 이의 95% 신뢰구간은 .04~.1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후반추사고를 매개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14로 추정되었는데 이의 95% 신뢰구간은 .09~.2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10으로 추정되었는데 이의 95% 신뢰

구간은 .06~.14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사이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 각각의 매개효과와 순차적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사이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는 순차적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초등교사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

표 8. 매개효과들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은폐 →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09*	.03	.04	.16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사후반추사고 →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14*	.03	.09	.21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 자기은폐 → 사후반추사고 →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10*	.02	.06	.14

*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이지유, 박기환, 2021; 임문주, 유금란, 2020; 최정훈, 이정운, 1994; 한가희, 김정민, 2017; Clark & Wells, 1995)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조건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그 영향을 염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와도 일관적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면 승인에 대한 요구, 과잉불안염려, 개인적 완벽성에 의해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Deffenbacher, Zwemer, Whisman, Hill, & Sloan, 1986) 및 최근 교직 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문화일보, 2020.10.2.),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수업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의 질을 평가하거나 등교 방법 등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김혜진, 2020) 교사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초등교사는 학부모의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과도하게 높은 사회적 기준으로 인해 이러한 욕구가 좌절될 것에 대한 염려,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경직된 신념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또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두 변인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임문주, 유금란, 2020)를 지지하였고, 자기은폐 성향이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즉,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태도를 겪은 후에도 학부모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무능한 교사로 비칠 것에 대한 걱정, 직무에 대한 실패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김희정 외, 2021; 이규미, 손강숙, 2013; 장일영, 기영화, 2020; 정연홍, 유형근, 2015)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후반추사고와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반추사고와의 관계는 선행연구(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 Fehm, Schneider, & Hoyer, 2007)와 일관되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촉발될 때 부정적 사후반추사고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연구(Dannahy & Stopa, 2007)와도 일관적이다.

한편 본 연구의 두 매개변인인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초등교사가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수치심과 당황스러운 정서를 경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은폐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추를 지속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 사회적 상

호작용 불안을 함께 탐색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변인들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은폐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이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경험할 때 자신이 지각하는 부정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려는 자기은폐 수준이 높아지며 그 결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자기은폐가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임문주, 유금란, 2020)와 일관적이다. 또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이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성향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강초롱, 양재원 2019; 신지은 이동귀, 2011; Kawamura & Frost, 2004)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타인의 비판 및 평가와 높은 관련이 있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 중 ‘불완전함 은폐 노력-언어적’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자기은폐가 완전매개 하였다는 연구결과(이나희, 이동귀, 2020)와 관련지어 본 연구를 해석할 수 있다. 즉,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교사는 자신의 실수나 결함이 언어적으로 드러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까 염려하여 자신의 언어를 인지적으로 통제하고

자 하는 자기은폐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은폐는 교사가 학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Wegner & Erber, 1992),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자기은폐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과 대인 관계 문제를 부분매개 하고(이가영, 2019),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과 우울의 관계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강초롱, 양재원, 2019; 백가은, 양재원, 2020)와 관련지어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적응에 자기은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인 관계 문제 및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사후반추사고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박소원, 이아라, 2019; 이지유, 박기환, 2021)와 일치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황 이후에 이를 부정적으로 반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Rapee와 Heimberg (1997)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초등교사는 비슷한 상황에서의 과거 경험, 내적 단서, 학부모의 피드백 등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 표상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이 종료된 후

에도 잠재적 위협에 주의 자원을 할당하며 불안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초등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할 때 과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정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내적 단서, 학부모의 표정과 말투 등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상황 이후에 부정적인 반추에 몰입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순차적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초등교사가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경로를 순차적으로 거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Clark와 Wells(1995)의 인지이론 및 사고, 감정 및 표현의 억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즉,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수치심을 경험하고 거부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와 감정을 억제하고 표현을 은폐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반동효과를 유발하여 침투사고로 이어지고, 사회적 상황이 끝난 후에도 사후반추사고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신정아, 김향숙, 2013; 윤소영, 황성훈, 2020; Clark & Wells, 1995; Joormann & Gotlib, 2010; Wegner et al., 1987).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안전행

동을 취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반추사고를 통해 대인 관계 문제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이지유, 박기환, 2021)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은폐가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임문주, 유금란, 2020)에서 사회적 사건이 종료된 이후의 비합리적 인지 요인인 사후반추사고를 추가하여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각 변인들의 순차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진 초등교사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제안할 때 우선적인 개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의 관계를 통해 초등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유발하는 인지적 및 행동적 기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이르는 경로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변인들의 영향 경로를 설명하고 있어 학교 현장이나 임상 장면에서 학부모의 개입과 평가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아져 있는 초등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개입 방안을 고안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 있는 초등교사를 상담할 때 사고 및 정서를 억제하고 은폐했던 행동에 대해 개입하고, 부정적인 표상과 반추에 대해 탐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게 거절될 것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담 장면에서도 자신의 실수나 어려움 등을 상담자에게도 언어적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을 보여 깊이 있는 치료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김은혜, 2014; 김하정, 장재홍, 2019). 범불안 장애에 대한 치료에서는 정서를 회피하고 억제하기보다는 이를 자각하고 조절하는 정서조절치료(emotion regulation therapy: ERT)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Mennin & Fresco, 2014). 사회불안이 불안에서 파생된 심리적 부적응임을 고려할 때 ERT를 통해 자기은폐 행동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즉,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높은 두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는 초등교사를 상담할 경우 자신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실수나 어려움 등을 은폐하려는 행동 경향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고나 정서를 억제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자각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수용적으로 이해하고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내담자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정적인 사후반추사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은폐에 대한 개입 이후 이들에게 형성된 정신적인 표상과 반추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후반추사고에 몰입하지 않도록 돕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반추적 반응이 부정적인 생각의 편향을 유발하여 증상의 지속기간을 연장하고, 주의 분산적 반응이 증상의 지속기간을 단축한다는 반추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Nolen-Hoeksema, 1991)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지속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주의 전환 훈련과 같은 분산적 사후

처리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후반추사고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던 선행 사건이 개인의 인지 도식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므로 상담자가 억제되고 분화되었던 내담자의 정서 경험을 이해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내적으로 새롭게 표상하여 인지 도식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내담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신정아, 김향숙, 2013). 이를 위해 상담자는 역기능적 사고기록지를 활용한 인지적 재구성법, 바이오피드백 기법 등을 활용하여(권정혜, 2007; 이지유, 박기환, 2021) 내담자의 표상과 반추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처 훈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인지행동집단치료 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오자영, 손정락, 2009). 따라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초등교사에게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개입할 때 인지행동집단을 형성하고 치료 관계를 구축하여 개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발생 및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선후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살펴볼 때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상황이 종료된 후 부정적으로 상황을 반추하고, 이후 부정적 사고나 정서를 더욱 은폐하게 되어 사회적인 상호작용 불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연구에서 자기은폐와 사후반추사고의 선후 관계에 대해 두 가지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해 본다면 명확한 영향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져 여러 지역의 초등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수도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응답률이 67.3%이며 교직 경력이 10년 이하인 교사가 전체의 74.8%이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초등교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전 지역의 초등교사를 체계적으로 표집할 필요가 있으며 교직 경력을 균등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각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이 방어적으로 응답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은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설문이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이 왜곡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은폐 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면담이나 관찰 등의 방법을 탐색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에서 ‘친구’, ‘다른 사람들’ 문구를 ‘학부모’로 한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초등교사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한다면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 사후반추사고를 설정하였는데 주요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인들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초등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변인을 제외하거나 나머지 변인들을 통제하여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초롱, 양재원 (2019). 사회불안과 우울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기준과 자기은폐의 조절된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0(5), 521-535.
- 곽세롭 (2016). 긍정적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증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사건의 긍정결과 가치절하와 부정결과 파국화의 매개효과.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경, 김천기 (2015).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학부모의 소비자 주권적 태도와 그에 따른 교사의 위축 및 정체성변화. *교육종합연구*, 13(3), 83-109.

- 권석만 (2014). 이상심리학의 기초: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권성연 (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과 인식에 대한 탐색. *교육공학연구*, 36(3), 745-774.
- 권신영 (2021). 고등학교 경력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7(3), 411-441.
- 권정혜 (2007). 사회공포증 인지행동치료의 최근동향. *인지행동치료*, 7(1), 1-15.
- 김영주 (2009). 사회불안의 사후반추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원호택 (1997). 대인불안의 모델들: 개관. *심리과학*, 6(2), 109-130.
- 김은혜 (2014). 불안정 성인 애착이 자기은폐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 경험, 자기불일치, 수치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정, 장재홍 (2019).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이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40(1), 85-103.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613-639.
- 김희정, 박은정, 김현정 (2021). 학생·학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과 상담에 대한 기대에 관한 질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60(4), 545-570.
- 박미란, 이지연 (2008). 자기은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547-1565.
- 박민주, 박기환 (2019).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탈중심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1), 147-164.
- 박소원, 이아라 (201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사후반추사고가 대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2), 45-65.
- 박정경 (2020.10.02.). “교사, 일반 취업자보다 규정 잘 지키지만 열정 부족해”, *문화일보*, Retrieved fr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02MW120042640974>
- 배병렬 (2014).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가은, 양재원 (2020). 사회불안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편집사고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1063-1080.
- 성채은, 김희경 (2021). 대학생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경험회피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8), 201-221.
- 신정아, 김향숙 (2013). 행동억제성향, 감정명명 곤란, 반추와 걱정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3(2), 269-283.
- 신지은, 이동귀 (2011). 고등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자기은폐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2), 55-79.
- 오자영, 손정락 (2009). 인지행동집단치료가 사회공포증 경향이 있는 대학생들의 공격자의식, 대인불안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33(2), 285-308.
- 우중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

- 울: 한나래.
- 윤소영, 황성훈 (2020). 정서 억제가 과잉사고를 가져오는가? 생활 사건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정서 억제와 반복적 부정 사고의 순차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4), 545-560.
- 이가영 (2019). 사회불안의 대인관계문제: 자기은폐와 심리적 유연성의 이중매개모형.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 손강숙 (2013). 폭력피해교사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159-178.
- 이나희, 이동귀 (2020).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자기몰입 및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347-1369.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이정윤, 최정훈 (1997).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5-56.
- 이지유, 박기환 (202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안전행동과 사후반추사고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7), 809-828.
- 이현정, 김장희 (2020). 초·중등 교원의 심리적 안녕감 분석: 실태, 저해 요인 및 지원 방안. *한국교육연구*, 37(1), 339-367.
- 이희진, 김성봉 (2020). 초등교사의 감정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문화와 융합*, 42(7), 275-294.
- 임문주, 유금란 (2020). 대학생의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은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365-389.
- 임선영 (2005).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후반추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 최혜라, 권석만 (2007). 사후반추사고가 사회적 자기효능감 및 예기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39-56.
- 장일영, 기영화 (2020). 교권침해 경험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회복과정. *교육문화연구*, 26(3), 239-267.
- 정계숙, 손환희, 윤갑정 (2021). COVID-19로 경험한 학교와 교육공동체: 초등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7), 77-94.
- 정연홍, 유형근 (2015).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예방 및 개입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789-808.
- 정한나, 김정민, 박 은 (2017). 대학생의 재확인 추구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1), 105-122.
- 조은혜, 이승엽, 정철영 (2021). 초등교사 소진의 선행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3(2), 77-106.
- 최정훈, 이정윤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 21-47.
- 한가희, 김정민 (2017).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행동치료*, 17(2), 161-179.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9).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0). 제39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영근 (201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공포와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4(2), 195-212.
- 황수아, 최한울 (2014). 심층면담을 통한 초등 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교원교육*, 30(1), 59-91.
- Abbott, M. J., & Rapee, R. M. (2004). Post-event rumination and negative self-appraisal in social phobia before and after trea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3(1), 136-14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utista, C. L., & Hope, D. A. (2015).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ocial anxiety and response to positive and negative online social cu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9(5), 658-668.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New York: Guilford Press.
- Dannahy, L., & Stopa, L. (2007). Post-event processing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207-1219.
- Deffenbacher, J. L., Zwemer, W. A., Whisman, M. A., Hill, R. A., & Sloan, R. D. (1986). Irrational beliefs and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3), 281-291.
- Fehm, L., Schneider, G., & Hoyer, J. (2007). Is post-event processing specific for social anxiet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1), 11-22.
- Heerey, E. A., & Kring, A. M. (2007).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125-134.
- Heimberg, R. G., Dodge, C. S., Hope, D. A., Kennedy, C. R., Zollo, L. J., & Becker, R. E. (1990). Cognitive-behavioral group treatment for social phobia: Comparison with credible placebo contro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1), 1-2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ormann, J., & Gotlib, I. H. (2010). Emotion regulation in depression: Relation to cognitive inhibition. *Cognition and Emotion*, 24(2), 281-298.
- Kawamura, K. Y., & Frost, R. O. (2004). Self-concealment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2), 183-191.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

- (1998). Social phobia subtype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5), 613-619.
- Kocovski, N. L., & Rector, N. A. (2008). Post-event processing in social anxiety disorder: Idiosyncratic priming in the course of CB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2(1), 23-36.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4), 439-455.
- Larson, D. G., Chastain, R. L., Hoyt, W. T., & Ayzenberg, R. (2015). Self-concealment: Integrative review and working mode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8), 705-774.
- Leary, M. R. (1983). *Understanding social anxiety: Social, personality, and clinical perspectives*. Beverly Hills, CA: Sage.
-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94-112). New York: Guilford Press.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of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4), 455-470.
- Mennin, D. S., & Fresco, D. M. (2014). Emotion regulation therapy.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469-490). New York: Guilford Press.
- Nichols, K. A. (1974). Severe social anxiet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7(4), 301-306.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4), 569-582.
- Rachman, S., Grüter-Andrew, J., & Shafran, R. (2000). Post-event processing in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6), 611-617.
- Rapee, R. M., & Lim, L. (1992). Discrepancy between self-and observer ratings of performance in social phobic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4), 728-731.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opa, L., & Clark, D. M. (1993). Cognitive processes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3), 255-267.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26-331.
- Uysal, A., & Lu, Q. (2011). Is self-concealment associated with acute and chronic pain? *Health Psychology*, 30(5), 606-614.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gner, D. M., Schneider, D. J., Carter, S. R., & White, T. L. (1987). Paradoxical effects of thought sup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1), 5-13.
- Wegner, D. M., & Erber, R. (1992).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03-912.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 원 고 접 수 일 : 2021. 12. 29.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3. 10.
최종게재결정일 : 2022. 03. 17.

**The Influence of Fear of Negative Parental Attitudes toward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Teachers’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Shin, Hyo-bin¹⁾

Dong-gwi Lee²⁾

¹⁾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degree student

²⁾Yonsei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had a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fear of students’ parents’ negative attitudes and their social interaction anxiety. An onlin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elementary school teacher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and 400 responses were rece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was determin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search model’s goodness of fit wa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re were four main result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concealment, post-event rumin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Second, self-conceal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Third, post-event rumination also had a medi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Fourth,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als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In conclusion, this study’s results show the need for an intervention that addresses elementary school teachers’ self-concealment and post-event rumination when they experience anxiety about students’ parents’ negative evaluations.

Key words :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ocial interaction anxiety, self-concealment, post-event rumination